

한림성심학보



발행인 문영식 | 주간 이하영 | 편집장 김지현 | 디자인 지은 | 간사 김성민 | 고문 CBS 박정민 | HALLYM SACRED HEART UNIVERSITY | 창간일 1988년 6월 22일 | 한림성심학보사 (033)240-9309

- 01대학** | '함께하는 대학생활'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 행사 성료
| 강원 시립 전문대학 중 유일!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 고교 현장 목소리 담은 입시정책 추진 입시정책 자문 위원단 출범
| 심진숙, 용준형 교수 제45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표창
- 02대학** | 캠퍼스에 봄을 입히다! 제2회 봄꽃축제 '영화제' 성료
| 입학-홍보처장 박철수 교수 임명
|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공감과 존중의 가치 확산"
| "강원의 참인, 함께 도약하다" 창업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 지역 상생 평생교육 '파크골프' 입문자 과정수료식 개최
- 03대학** | 열정·화합·청춘이 하나로 한림성심대학교 한빛제 성황리 마무리
| 캠퍼스에 전해진 따뜻한 응원 마음 담은 간식으로 학생들에 다가간다
| "괜찮아 넌 혼자야 아니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성료
|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하는 '성심재의 밤' 행사
| 치위생과 - 해피덴코프레이션 산학협력 MOU 체결
- 04대학** | '보건의료 융합 교육의 결실' 보건의료계열 특화과정(IPE) 1기 수료식
| 졸업생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 전공별 릴레이 토크콘서트 개최
| 학생 참여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성과 확산 나신다
| 외래종 싹발기 봉사활동을 통해 행정의 역할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다
| 깨끗한 캠퍼스를 만듭니다!
- 05대학** | 캠퍼스에 봄을 입히다! 제2회 봄꽃축제 '영화제' 인터뷰
| 박철수 에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출간
| 글쓰기 특강
- 06대학** | 2025년 학과평가 비교건별 최우수학과 : 레저스포츠과 인터뷰
| 2025년 학과평가 보건계열 최우수학과 : 물리치료과 인터뷰
- 07대학** | 우리대학 이색학성을 소개합니다!
| 학보사 깜짝 앙케이트
- 08대학** | 개회식, 학생회, 동아리 부스까지 한빛제의 모든 순간!
- 09**
- 10대학** | 독서인증 미일리지 항목에서 제외 시 서평 등 부정행위 방지 지원
| '학교 소식부터 17만 뷰 릴스까지' 우리 대학 인스타그램 소통의 중심에 서다.
| '봄동비빔밥부터 불닭볶음밥까지' 진화하는 학식, 지역사회의 맛남의 광장 되다.
| 시험기간 열심히 공부하는 한림성심대학교 학생들의 모습!
- 11사회** | 한림성심대 찬반 토론 : 대학교 시험 평가방식은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공정한가
| 한 줄 명언
- 12종합** | 쓰레기봉투 사재기, sns의 영향 논란
| 가짜말 확산, 가성비 식당 정보 공유 트렌드
| 학보에서 만나보는 시사상식
- 13웹툰** | 학업·사외경험·장학금까지 근로장학생 신청 가이드
| 도서관 이달의 책

'함께하는 대학생활'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 행사 성료

우리대학은 4월 8일, 1학기를 맞이해 교내 도현대강당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총장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했다.

금일 행사는 재학생 약 220여 명이 자리를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세상-연결된 개인'이라는 주제로 문영식 총장의 특강이 진행되었고, 문영식 총장은 대학생들 중 공동체 의식 함양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 학생들에게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총장과의 대화는 학생들의 자신감·리더십 함양 도모와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 발전에



총장과의 대화

대한 의견을 직접 총장에게 이야기하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학업 및 취업, 진로 등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영식 총장은 "학생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교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보람찬 대학생활과 꿈을 응원했다.

김성민 간사

강원 시립 전문대학 중 유일!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우리대학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재학생과 지역주민, 재직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AI교육 및 활용을 지원하는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1일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 24개의 사업단(35개 전문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한림성심대학교는 '단독형'으로 이름을 올렸고 특히, 강원도 내 사립 전문대학 중에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업을 총괄한 강현임 교무처장은 "재단 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의료 실무 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전 계열 전공별 AI-DX 융합 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 변화를 주도할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림성심대학교는 AI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 H-AIDE BASE 구축 △ 수요자(재학생·성인학습자·재직자) 맞춤형 X-AI 융합 실무 교육체제 구축 △ AI 기반



한림성심대학교

교수학습 혁신 모델 구축 및 AI 역량 강화 △ 지역사회 및 산업 기반 AID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영식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우리 대학이 지역을 기반으로 AID 전환 시대를 선도할 교육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AI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실무 중심 전문인재 양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으로 한림성심대학교는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2028년 2월까지 약 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AI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과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성민 간사

고교 현장 목소리 담은 입시정책 추진 입시정책 자문 위원단 출범

우리대학은 4월 21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고교 교사 및 신입생 유치전략TF팀이 참석한 가운데 입시정책 자문 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2026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입시정책 자문 위원단은 도내 4개 지역(춘천, 원주, 강릉, 철원) 소재 고등학교 교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마감되는 내년 2월 27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문영식 총장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은 대학의 입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중심의 입시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2022년부터 일선 고등학교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입시정책에

반영하는 입시정책 자문 위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 개선 결과,



입시정책자문위원단 회의

학령인구 감소와 입시환경 변화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지원인원과 총원율이 꾸준히 상승해 올해 정원 내 총원율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성민 간사

심진숙, 용준형 교수 제45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표창

우리대학은 5월 18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제45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과 심진숙 교수와 물리치료과 용준형 교수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장을 수상한 심진숙 교수는 2002년 3월에 임용되어 학과장, 전공심화주임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용준형 교수는 2003년 3월에 임용되어 학생·

입학처장, 입학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두 교수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림성심대학교에 재직하며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성민 간사



표창장 수상자 용준형교수와 심진숙 교수



캠퍼스에 봄을 입히다! 제2회 봄꽃축제 '영화제' 성료



축제를 즐기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학생들

우리대학은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캠퍼스에서 제2회 봄꽃축제 '영화제'를 4월 8일 진행했다. 활기찬 캠퍼스 분위기 조성하고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학생지원팀에서 마련한 이번 축제는 약 33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는 일송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오후 6시부터 약 3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간식과 음료를 즐기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존', 영화 '비긴어게인'을 감상할 수 있는 '영화존'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고려해 올해 좌석 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영화제 현장

행사를 총괄한 학생처 권홍민 처장은 "봄꽃축제가 2회차를 맞이한 가운데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간사

영화제의 자세한 이야기는 5면에서 계속됩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공감과 존중의 가치 확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우리대학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4월 29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내 도헌대강당에서 재학생 1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우리꿈터 김기섭 팀장이 강의를 맡아 장애인의 인권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차별적 시선과 언어에 대해 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공감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홍민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우리 대학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공감과 배려,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입학·홍보처장 박철수 교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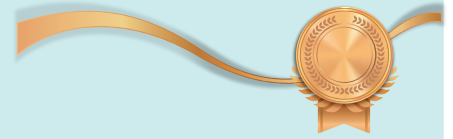
한림성심대학교(총장 문영식)는 신입 입학·홍보처장에 박철수 방사선과 교수를 임명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박철수 입학·홍보처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영남대학교에서 의학물리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9년 한림성심대 교수로 부임해 18년간 재직 중이다. 부임 전에는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부임 이후에는 취업지원센터장, 취·창업지원처장, 입학·홍보처장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며 대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김성민 간사



입학·홍보처장으로 임명된 박철수 교수님



"강원의 창업, 함께 도약하다!" 창업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창업역량 Build-UP 통합워크숍 기념 촬영

우리대학 창업지원센터는 4월 29일부터 2일간, 강릉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창업역량 Build-UP 통합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핵심 창업 교육을 통해 (예비)창업자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원 지역 창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강원창업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주관하여 진행되었다.

워크숍에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 기업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 역량강화교육 △ 리프레시 프로그램 △ 전문가 및 선배 창업자 멘토링 △ 창업자 네트워킹 등이다.

특히, 참여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예비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 교육을, 초기 단계에서는 글로벌 진출 전략과 투자 유치 전략 교육을 병행한 실효성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주상 창업지원센터장은 "오늘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리대학 RISE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창업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지역 상생 평생교육 '파크골프 입문자 과정' 수료식 개최



파크골프 입문자 과정 수료식

우리대학 RISE사업단은 5월 17일 인제군 내린천 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 입문자 과정의 수료식을 진행했다.

파크골프 입문자 과정은 만 25세 이상 성인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총 40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17명이 수료했다.

교육은 인제군 생활과학관, 한계생태공원 파크골프연습장, 내린천 파크골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육생들은 파크골프의 규칙과 경기 운영 방식, 기본 스윙 자세 및 실전 경기 운영 등을 배우며 기본 이론과 실기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였다.

특히, 본 과정은 2025년 홍천군파크골프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과정(강원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비 인증 프로그램)으로 참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분야의 입문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되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현재 RISE사업단은 파크골프 교육과정을 기본기를 다지는 '입문자 과정'과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2급 지도자 과정'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급 지도자

과정은 지난 4월 종료된 바 있다.

또한, 한림성심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대학 특성화 분야인 3W(Wellness, Workability, With-Local)+3W(Wellness Health, Wellness Social Care, Wellness Food)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수요맞춤 생애전환형 웰니스케어 특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강원형 직업·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웰니스케어 교육과정, 생애주기 기반 프로그램,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프로그램 등 경력단계별 실무형 직업교육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김성민 간사

열정·화합·정진이 하나로! 한림성심대학교 한빛제 성황리 마무리

우리대학은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교내에서 열린 '2026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이하 한빛제)가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빛제는 학생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학과 및 동아리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로, 매년 체육대회와 동아리제를 함께 운영하며 대학의 1학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고, 올해 역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학생 중심 콘텐츠로 캠퍼스 곳곳을 활기로 채웠다.

개회식은 이현규 총학생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문영식 총장 격려사, 선수대표·심판위원 선서순으로 진행됐고, 이어서 중앙 동아리 '알파즈'의 치어리딩, '루미너스'의 댄스 무대가 펼쳐지며 한빛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경기 중인 학생들의 모습



응원 중인 학생들의 모습

또한, 외부 기관과의 협업 역시 눈길을 끌었는데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해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 측정과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마음버스'를 운영했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간호학과 동아리 '빠담빠담'과 연계해 조혈모세포 기증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커피트럭 운영과 함께 융합전공 부·복수전공 상담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업 설계를 지원했다.

한빛제의 하이라이트인 체육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5개 종목(풋살, 농구, 피구, 족구, 줄다리기)으로 치러졌으며, 치열한 경기 끝에 물리치료과가 3년 연속 우승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현규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지난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한빛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는 8면에서 계속됩니다...



한빛제 기념 촬영

동아리제를 살펴보면 △ 초음파 기계를 활용한 갑상선 검사 부스 △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 부스 △ 치과 재료를 이용한 기념품 제작 부스 △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먹거리 및 공예품 판매 부스 △ 기타 학과 및 중앙동아리 체험 부스 등 총 17개 동아리가 참여, 학생들의 전공과 재능을 살린 콘텐츠들이 마련돼 학생들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는 대학본부에서 나서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 인권존중 단편영화 상영 △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및 홍보 부스운영 △ RISE사업단 홍보 및 체험 부스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학의 다양한 교육 지원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하는 '성심재의 밤' 행사

우리대학 생활관은 5월 6일 교내 생활관 일원에서 기숙사생들을 위한 '성심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기숙사생 136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소속감 및 유대감 향상과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학업 및 타지 생활에 지친 학생들이 함께 간식을 나누고 TV를 시청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강현임 생활관장은 "기숙사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학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성심재의 밤을 함께하고 있는 기숙사생들의 모습



캠퍼스에 전해진 따뜻한 응원 마음 담은 간식으로 학생곁에 다가가다



간식데이 행사



지난 4월 15일, 학내 분수대 광장 인근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식데이' 행사가 학생지원팀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문영식 총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한 학생 250여 명에게 부리토와 음료를 제공하며 응원의 인사를 건넸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시험 준비로 지쳐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간식과 응원 덕분에 힘이 됐다."며 "이번 간식데이와 앵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신경 써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민 간사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성료

4월 8일, 우리대학 상담·인권 센터는 재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김은희 강사가 맡아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는 방법과 위기 상황에서 주변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연결하는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교육은 교내 스튜디오키친에서 진행됐으며, 당초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약 15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승주 상담·인권센터장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특강과 상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간사



자살예방 교육



치위생과 - 해피덴코프레이션 산학협력 MOU 체결

우리대학 치위생과는 4월 15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주)해피덴코프레이션(대표 문형주, 이하 해피덴)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과 의료 산업 발전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술 및 장비의 상호 이용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취업 정보 공유 ▲임상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최신 치과재료 지원 등이다.

치과 임상재를 주력으로 개발·공급하는 기업 해피덴은 학생들의 임상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치과 재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임애정 치위생과 학과장은



해피덴코프레이션과의 업무협력 체결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림성심대 치위생과는 강원권 최초로 한국치위생학교육 평가·인증(5년)을 획득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성민 간사

'보건의료 융합 교육의 결실'

보건의료계열 특화과정(IPE) 1기 수료식



보건의료계열 특화과정(IPE) 1기 수료식

우리대학은 4월 15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계열 특화과정(InterProfessional 보건의료계열 특화과정)은 전공 간 융합과 다직종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기 과정에는 간호학부,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등 보건의료계열 학생 58명이 참여해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 '보건의료융합기초' 자율교양 수업 △ 교내 학과 실습실 견학 및 전공 체험 △ 외부기관(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연수 △ 워크숍 및 경진대회 등이며, 다양한 전공의 연계 체험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필수적인 팀 기반 소통 능력과 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 이수자 30여 명에게는 오는 7월 중 일본 나고야시립대학교 및 부속 병원의 견학 기회가 주어지며, 참여학생은 글로벌 보건의료 환경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국제적 시각을 갖춘 보건의료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담당자는 밝혔다.

2026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특화과정은 오는 5월 'IPE 2기' 참여학생을 모집, 보건의료 융합 교육의 성과를 계속해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주상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IPE 과정은 전공 간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기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무사히 교육과정을 마친 1기 수료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융합 교육을 지속 확대해 학생들의 실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간사

학생 참여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성과 확산 나선다

우리대학 혁신지원사업단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인 '학생 모니터링단(Zoom-in)'과 'RISE mate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의 주요 재정이 정부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성원의 사업 이해도와 참여도가 성과 창출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은 혁신지원사업 및 RISE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성과 역시 구성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림성심대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정부지원사업의 홍보단이 되어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우수성과 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아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참여 기반 성과 확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두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9일 발대식과



학생 모니터링단(Zoom-in)과 'RISE mate 서포터즈' 발대식

오리엔테이션을 각각 진행하였고, 선발된 학생 17명은 2027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및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김성민 간사



깨끗한 캠퍼스를 만들시다!



테이프로 훼손된 교내 벽면

학생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홍보를 위해 대학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포스터는 꼭! 지정된 게시판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2026년 5월 18일에 제거한 포스터로 학생복지관 복식실 옆 벽면에 1년 가까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페인트 벽면에 테이프로 붙이다 보니 떼어낼때 페인트가 같이 떨어져 나와 벽면이 훼손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지성인이니까요! 조금만 더 신경써서 아름다운 캠퍼스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김성민 간사

졸업생이 들려주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
전공별 릴레이 토크콘서트 개최



전공별 릴레이 토크콘서트 개최

우리대학은 5월 18일과 20일 교내 북큐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강원광역세일센터)과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춘천세일센터)와 연계한 전공별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의 취업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대학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간호학과와 물리치료과, 호텔조리과의 학생 약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에게 실제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진로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모교를 졸업한 최우영 물리치료사, 최은미 미술강 2스타 헤드셰프, 최영락 양양군보건소

공무원을 초청하여 이정희 아나운서의 진행 아래 분야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직무 경험 공유와 취업 준비 과정, 현장 실무 이야기,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주관한 권홍민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전공 분야 현직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지원팀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국민취업제도 운영', '취준감 높이기', '취업캠프', '취업스타', '커리어 브릿지', '미취업 졸업생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김성민 간사



외래종 싹뽑기 봉사활동을 통해 행정의 역할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다

우리대학 행정실무과는 2026년 5월 6일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외래종 싹뽑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래종인 가시박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 주변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자라난 가시박의 새싹을 직접 뽑으며 확산을 방지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막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래종 싹뽑기 봉사활동 중인 행정실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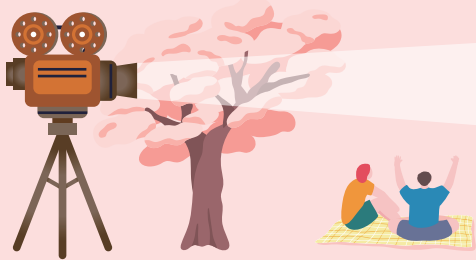
행정실무과 학생들

외래종 식물은 토종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는 하천·공원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에 약 5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외래종 관리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행정 비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행정은 단순히 문서를 처리하거나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외래종 제거사업 역시 예산 편성, 사업 운영, 환경 정책 시행, 시민 참여 유도 등 다양한 행정 실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실무과 김민정 조교





캠퍼스에 봄을 입히다!

제2회 봄꽃축제 '영화제' 인터뷰



Q 오늘 영화제를 통해 얻어가고 싶은 경험이나 감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이하는 영화제라서, 단순히 영화를 보는 시간을 넘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싶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같은 장면을 보며 웃고 공감하는 순간들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새내기로서 느낄 수 있는 설렘과 즐거움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를 통해 작은 순간들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경험을 얻고 싶습니다.

Q 조용한 영화관이 아니라 시끄러운 축제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나요?

A 조용한 영화관에서는 영화 자체에 집중하는 시간이 중심이라면, 축제에서는 그 공간의 분위기와 사람들과의 교감이 함께 어우러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반응을 나누면서 영화를 보는 게 처음이라 더 신선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 더욱 즐겁게 느껴집니다.



축제를 즐기고 있는 한림성심대학교 학생들

Q 이런 행사가 자주 열린다면 어떤 형식의 콘텐츠가 추가됐으면 좋겠나요?

A 학우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미니게임' 콘텐츠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숨겨진 보물찾기나 뽑기 같은 참여형 이벤트가 있다면 축제의 재미가 배가될 것 같아요. 함께 게임을 즐기며 소소한 경품도 타다 보면 강의실 안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서로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오늘 영화제에 오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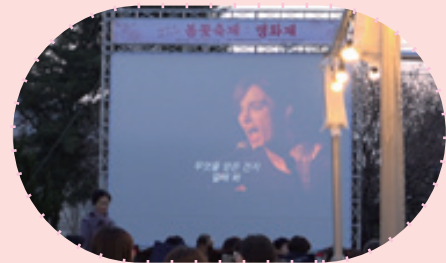
A 일단 대학교에서의 첫 축제기도 하고, 그동안 강의실에서만 만났던 동기들과 축제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정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벚꽃도 많이 피서 캠퍼스의 낭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Q 이런 축제가 대학 생활에서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업과 일상에 치여 여유를 느끼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영화제와 같은 소소한 축제는 그런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고, 대학 생활을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중인 학생들과 이가희 기자



영화제 하이라이트인 영화 감상

Q 영화 시작 전에 이 행사가 설레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A 비긴어게인은 영화 특유의 분위기도 정말 좋고, 주인공이 살아가는 삶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도 좋아하고 자주 봤던 영화인데요, 이렇게 큰 야외 스크린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꽃을 즐기며 볼 수 있게 되어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많이 피서 이미 익숙한 영화임에도 새로운 설렘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김예나 기자 kimyn0309@naver.com
이가희 기자 lghel@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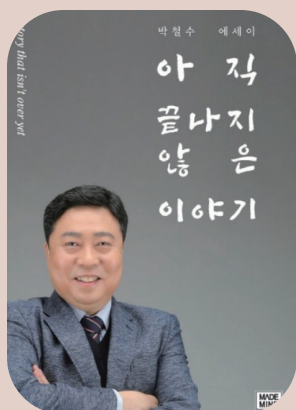
박철수 에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출간

우리대학 박철수 교수님은 4월 10일 에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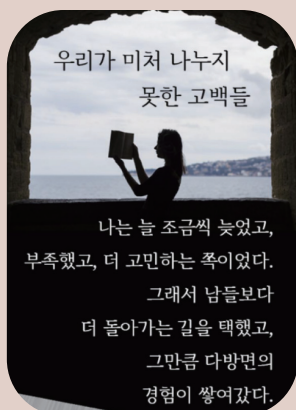
이 책은 화려한 성공담이나 삶의 정답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가 아닌, 때로는 흔들리고 돌아가더라도 끝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 걸어온 한 사람의 진솔한 삶의 기록을 담았다.

항상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교육자' 박철수가 아닌 '인간' 박철수로서 살아온 그의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공감과 울림을 전하고 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과 함께 그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김성민 간사
사진출처 : 한국도서출판정보센터



박철수 교수님의 에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나는 늘 조금씩 늦었고, 부족했고, 더 고민하는 쪽이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그만큼 다방면의 경험이 쌓여갔다.



글쓰기 특강



강원CBS 박정민 국장님의 글쓰기 특강

5월 6일, 한림성심학보사 학생기자들의 기사력을 업! 시키기 위해 학보사 고문으로 활동하시는 강원CBS 박정민 국장님의 글쓰기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날카로운 분석과 풍부한 글솜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민 간사



2025년 학과평가 비보건계열 최우수학과

레저스포츠과 인터뷰 **홍윤숙** 교수님



레저스포츠과 단체 사진

Q 학과평가 최우수학과 선정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먼저 1999년 학과개설 이후 2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과를 거쳐 간 수많은 제자와 전현직 교강사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레저스포츠과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끈끈한 유대를 이어온 산학협력업체 관계자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수학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전통의 힘을 기반으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실무 중심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운동 기술을 지도하는 것을 넘어, 현대인의 신체 불균형을 개선하는 자세 교정과 운동 재활, 그리고 피클볼과 같은 최신 뉴스포츠와 스킨스쿠버 등 고부가가치 레저스포츠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인 청소년지도사 과정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격과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한 것도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웃음)



Q 학과 특성상 다양한 활동형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타 대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강의실을 넘어 현장으로, 단순 참여가 아닌 지도자로"가 우리 학과의 교육 방향입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사회 및 산업체 전문가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과는 정규 교육과정에 스킨스쿠버(하계)와 스키(동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계절별 특성화된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 후 2년 동안 국가자격 2종과 민간자격 5종 등 총 7개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스포츠지도사, 청소년지도사 2급(무시험), 바다벨런스 트레이너,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스킨스쿠버, 스포츠마사지, 스포츠테이핑 등 다양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 지원을 통한 자격 취득 집중 프로그램과 무료 실기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무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을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어 졸업과 동시에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Q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와 최근 취업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과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최근 스포츠 산업은 단순 여가 활동을 넘어 맞춤형 헬스케어와 운동 재활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과는 '헬스케어 및 청소년 신체활동 분야의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스포츠센터 지도자뿐 아니라 재활 및 클리닉 센터, 공공기관 체육 분야,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전문 인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다양한 자격 취득 지원과 함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 특강, 실무 중심 교육, 1:1 진로 코칭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취업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학과장으로서 학과를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교육 방향도 궁금합니다.

A 저는 "학생의 성장이 곧 학과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 간의 신뢰와 소통입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한계를 넘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창의·융합형 레저스포츠 전문가' 양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기술에 AI 데이터를 접목하거나, 자세 교정 코칭, 청소년 신체활동 기획지도 등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먼저 찾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우수학과 선정 기념 촬영



레저스포츠과 학생들

Q 끝으로, 레저스포츠과는 이런 친구들에게 어울린다! 레저스포츠과 지향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A "열정과 긍정이 실력이 되는 곳, 한림성심대학교 레저스포츠과로 오세요!"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기며,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파하고 싶은 친구라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우리 학과는 '실천적 지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레저스포츠 전문가'를 지향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의지가 강한 인재,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학생들과 함께 레저스포츠과의 미래를 같이하고 싶습니다.



김성민 간사

2025년 학과평가 보건계열 최우수학과

물리치료과 인터뷰



Q 학과평가 최우수학과 선정 소감과 요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25년 보건계열 최우수학과' 선정은 교수진, 재학생, 동문 등 학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헌신에 온 결과입니다. 교육과정의 내실화, 밀착형 학생 지도, 그리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시너지를 낸 점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우리 학과는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임상 현장에 즉각 투입 가능한 '임상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으며, 이러한 교육의 진정성이 이번 평가에서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Q 취업률 90% 달성 비결이 궁금합니다.

A 취업률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며 단기기에 만들어진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학과가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온 교육 철학의

결실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강도 높은 임상 실무 교육, 체계적인 임상 현장실습, 그리고 지도교수 책임하의 세밀한 진로 관리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맞춘 맞춤형 취업 지도가 취업의 질과 양을 동시에 끌어올린 핵심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평가 우수학과 선정을 기념하는 물리치료과 조교들의 모습

Q 올해 실습실을 새로 구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A 최근 우리 학과는 근골격계 재활을 위한 도수운동치료 전용 매뉴얼(manual) 테이블과,

신경계 재활 중심의 보바스(Bobath) 테이블을完비한 최첨단 실습실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손상을 모두 아우르는, 실제 임상과 닮은 완벽한 실습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교내에서부터 실제 환자를 마주하고 치료하는 수준의 심도 있는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학과만의 강력한 차별점입니다.

Q 물리치료과 하면 단결력으로도 유명하죠?

A 우리 학과의 끈끈한 단결력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아름다운 전통이자 문화입니다. 교수와 학생의 격의 없는 소통,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 덕분에 학과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학업, 실습, 국가고시 준비에서도 서로를 이끌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Q 학과 운영 철학 및 교육 방향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학과를 운영하며 늘 가슴에 새기는 질문은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임상 실무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과는 기존의 탄탄한 임상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인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 활용 역량'을 물리치료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 중심 물리치료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발돋움하도록 이끄는 것을 학과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보건의료인을 넘어, 임상 실무 현장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참된 전문 물리치료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김성민 간사

우리대학 이색학생을 소개합니다!

[디지털콘텐츠학부(영상콘텐츠전공)의 **육각형 인재!** 수많은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4.5 만점을 기록하고 있는 **과탐!**

2학년 김예나 학우를 소개합니다!



한림성심학보에 들어갈 기사를 촬영&인터뷰하는 방송부원이자 학보사 기자인 김예나 학우의 모습

Q 아니 학생이 학점을 4.5점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학과 1등!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학습법 공유해 주시죠.

A 몇 년 동안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재미있는 것도 없이 살다가 정말 오랜만에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런지 그냥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성취감들도 컸고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힙합, 팝핀, 락킹, 하우스 등 스트리트댄스는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장르를 배웠었고 현대무용이랑 한국무용, 뮤지컬같은 다양한 분야도 배웠습니다. 지금 기억은 잘 안나지만요. 하하

Q 고등학교와 지금 전공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대학을 선택한 이유, 지금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A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춤은 계속 추고 있었지만 그렇게 열정이 크지도 않았고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정말 컸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힘든 시기기도 해서 자발적 쉬엄춤 청년을 선택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지도 않고 대학 가보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 배운다던데 그냥 좀 쉬어도 되겠지, 언젠가 대학은 가겠지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그렇게 일년 일년 지나고 이십 대 후반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아무 비전 없이 살아도 되나. 돈은 벌어야 하니까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자격증 공부라도 해볼까 하고 준비하던 찰나에 부모님이 대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고 저도 더 늦기 전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다가 한림성심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학보사 기자, 불교동아리 회장, 방송부원, 영화 스터디 활동, Rise mate 서포터즈, 학과 공모전 동아리 부기장 등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활동들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A 사실 처음부터 여러 활동을 계획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송부의 경우 학과 공모전 동아리와 혼동해 지원하게 되었는데, 면접을 계기로 흥미를 느끼게 되어 최종적으로 두 활동 모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방송부를 하며 학교 체육대회와 축제 등 큰 행사들에 참여하게 되며 많은 것을 배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학과 공모전 동아리 ENG에서는 자연스럽게 부기장을 맡게 되었고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4월 총 두 편의 공모전에 영상 출품을 완료했습니다. 불교동아리는 작년 2학기부터 전 회장단의 권유를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화 스터디는 영상 분야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가 생겨 시작하게 되었고, 과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주 1회씩 모여 영화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Rise Mate 서포터즈는 전공을 살리면서 실무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고, 학보사는 지인의 추천을 통해 관심이 생겨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 이렇게 누구보다 바쁘게 활동하는 건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보이는데 어떤가요?

A 특별한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평소 궁금증이 많은 성격이고 무언가 경험해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활동들은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Q 벌써 2학년이네요.
남은 학창생활을 어떻게 보낼건지와 졸업 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A 남은 학창생활도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되 다른 활동들도 소홀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또 현재 여러 공모전 준비와 개인적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할 영상들을 많이 준비 중이라 그것들을 재밌게 잘 해내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는 편입을 해서 더 깊게 전공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며 단편영화도 한편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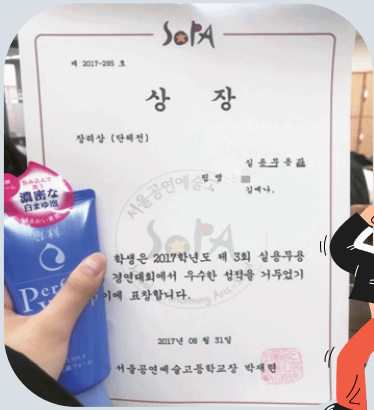
Q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까지 조~근근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 다양한 경험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A 드라마 보조출연 아르바이트 경험입니다. 배우 일을 하는 친구의 소개로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춤과 관련된 영상 촬영의 기회들은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전문적인 장비들과 체계적인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영상이라는 분야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많은 역할 중 '학보사 기자'로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학보사는 현재 4명의 학생기자들과 이하영 교수님, 김성민 계장님이 힘을 합쳐 학교의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들은 본관 엘리베이터, 학생복지관 편의점 앞, 도서관, 생활관, 평생교육관 등 다양한 곳에 비치되어 있고, 대학 홈페이지 '성심학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이 정말 많으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민 간사



고등학교 재학 시절 실용무용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Q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와는 조금 다른 '예술'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한 계기와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낫 뜨겁고 부끄러운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해서 중학교 2학년즈음부터 서울로 스트리트댄스를 배우러 다니다가 학원에서 예술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 듣게 되었고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 전공은 왁킹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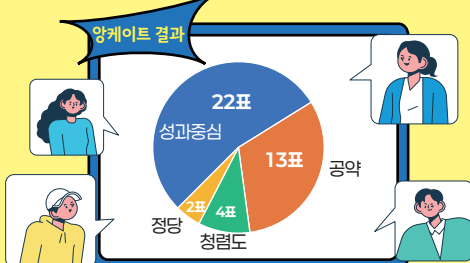
학보사 깜짝 앙케이트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6월 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날이다. 선거란, 국민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 결정 절차를 의미한다. 한림성심학보사에서는, 곧 다가오는 선거일에 맞춰서 학생들이 후보자를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크게 '성과 중심', '공약', '청렴도', '정당'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5월 13일 한빛제에서 이번 앙케이트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1위는 '성과 중심'이 차지했다. 성과 중심이란 그동안 후보가 펼쳤던 정책과 그로 인해 실제로 이루어낸 지역 발전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성과를 보는 것이 그 후보자를 뽑을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2위는 '공약'이다. 공약은 말 그대로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보고 후보자를 뽑는 것이다. 성과와 공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과는 그간의 행적을 보는 것이고, 공약은 앞으로의 약속을 믿어보는 것이다.



공약을 통해 투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는 정책인지, 실제 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성과 다음으로 공약을 뽑은 이유도, 본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위는 '청렴도'이다. 청렴도란 후보자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지사가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거나 특정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던 이력이 있다면, 그 후보자는 청렴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후보자의 성품을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청렴도라고 생각해서 이를 선택한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4위는 '정당'이다. 정당은 후보자가 속한 당을 보는 것이다.

정당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부분 정당의 방향성을 보고 그 후보를 뽑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앙케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후보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나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성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앙케이트 조사

이시훈 기자 7sewsstp@gmail.com

개회식, 학생회, 동아리 부스까지! 한빛제의 모든 순간! 1일차 한빛제!

이번 5/13-14에는 동아리제와 한빛제가 열려 많은 동아리 부스와 족구, 피구 등 다양한 경기를 볼 수 있었다. 특히 부스는 오전 10시부터 많은 학생들로 붐비며 축제의 분위기를 실감하게 했다. 개회식에서는 댄스동아리인 '루미너스'와 방사선과 치어리딩 동아리 '알파즈'가 무대를 꾸미며 화려하게 시작을 열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힘쓴 총학생회 또한 동아리 부스 인근에 운영 부스를 설치하여, 출석 체크 등 행사 중 필요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서는 이를 기획한 총학생회 소속 학생과 개회식을 빛낸 '알파즈' 부원, 실제로 동아리를 운영한 부스 참여 학생들의 한빛제 1일차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총학생회 '은하' 운영지원국장
치위생과 2학년 김하은 학생**

Q 안녕하세요! 지금 낮의 더위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행사 분위기는 어떤 것 같나요?

A (급하게 전화를 끊으며) 작년보다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저도 작년에는 참여하는 학생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총학생회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총학생회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우선은 '공정함'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치하고 또 한빛제 진행 과정 중 어떠한 부당함도 생기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또 인원 체크라든지 동아리 부스 운영 중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많은 시간을 들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였습니다.

Q 정말 많은 노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준비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A 첫날 동아리 지원서를 받았을 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원서를 받아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었어요. 그때가 제일 곤란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후에 정리한 파일을 아예 다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던 과정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혁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이겨내고 난 후 당장 지금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A 뿌듯함? 2학년으로 조금은 바쁘다고 느끼는 시기인데, 정말 제 시간을 잘 쪼개고 쪼개서 총학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학우분들이 한빛제를 즐기고 계신 모습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Q 정말 많이 바빠 보이는 것 같아요...

A 많이 바쁘긴 합니다... 바쁘긴 하지만 저는 총학생회를 지원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또 학생분들도 많이 즐겨주고 계시니까요! (웃음)

Q 마지막으로 오늘 내일 동아리제와 한빛제를 즐길 많은 학우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희 총학생회는 항상 학우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학우분들께서도 이번 한빛제를 다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개회식을 화려하고 씩씩하게 열어주었던 치어리딩 동아리 '알파즈' 부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알파즈' 부원 방사선과 2학년
안세인, 여채원 학생**

Q 알파즈에 지원하게 된 계기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A 안세인 학생
음.. 일단은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 힘든 2학년을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A 여채원 학생
룸메 언니가 하는게 너무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제가 마침 운동이 필요했던 시기라 지원하게 됐어요.

Q 연습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나, 치어리더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연습할 때 팔을 짹짹 피라는 말을 들었고, 동작을 좀 크게 크게 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Q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멤버들과 나누던 이야기 같은 거 있을까요?

A 이거는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자,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음)

Q 그러면 이번 곡 리스트 중에, 내가 정말 잘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일까요?

A 첫 곡을 제일 많이 연습 했어서, 그걸 제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Q 혹시 첫 곡이 어떤 노래일까요?

A 질풍가도라는 노래였습니다.


Q 마지막 질문인데요! 알파즈 공연을 현장에서 못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혹시 어떤 플랫폼에 올라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한림성심대학교 공식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총장님과 함께한 알파즈 단체사진

이어서 동아리제의 꽃인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많은 동아리 부스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로 붐볐지만, 그 틈을 타 신속히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간호학과 동아리 '수호랑' 부스
간호학과 1학년 박서연 학생**

Q 안녕하세요! 오늘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 동아리는 공 율기나, 한 손으로 종이접기 등을 운영하면서 '수어'와 관련된 손 활동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수호랑이구요! 간호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Q 오늘 동아리 부스에서 가장 메인으로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A 전부 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중에서도 공 율기기요! 제한 시간 내에 젓가락으로 공을 율기는 거를 열심히 기획해 봤어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많은 학생분들이 정말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진심을 다해서 공을 율기려는 모습이 정말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일차 치위생과 연합 동아리 활동 모습

Q 직접 부스를 운영해보니 예상했던 분위기와 같은지 아니면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예상했던 분위기와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더 잘 즐겨주셔서 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Q 저희도 아까 해봤었는데 정말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특히 수어로 퀴즈 맞추기 너무 재밌었어요!

A (웃음)부끄! 정말요?! 감사합니다.

Q 그렇다면 혹시 행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아까 피켓 들고 동아리 홍보하러 다녔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이 짹게나마 대화도 하면서 티키타카도 해주시고 답장도 해주셨어요. 너무 재밌고 특별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Q 지금 이 특별한 기세를 삼아 지금 동아리제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하나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어... 뭐가 있을까요... 터치드의 Highlight요! 일반 아이들 노래는 아니고 그냥 밴드 노래예요!

Q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부터 동아리 부스 운영 3시간 더 하기 VS 운동장 10바퀴 돌기 중 무엇을 선택 하실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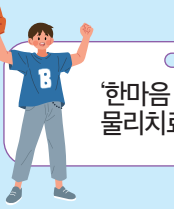
A 운영 3시간 더하기요! 저는 차라리 부스 운영을 3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Q 부스 운영이 정말 즐거우신가요?

A 네! 정말요! (당당)

Q 앞으로 남은 기간도 부스 흥하시길 바라겠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 네 감사합니다!



**'한마음 선교회' 부스
물리치료과 3학년 박주형 학생**

Q 오늘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A 중앙동아리 한마음 선교회입니다.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Q 오늘 동아리 부스에서 가장 메인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을까요?

A 저희 이제 제한 시간 안에 정해진 숫자만큼 공을 넣으면 쫄득이와 매실을 드리고 있습니다.

Q 직접 부스를 운영해 보니 예상했던 분위기와 비슷한지, 혹은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농구를 성공했을 때 환호도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 가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에 즐겁더라고요.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Q 밸런스 게임 하나 할게요! 지금부터 부스 운영 3시간 더 하기 vs 운동장 10바퀴 뛰기

A 저는 부스 운영하겠습니다. (웃음)

Q 즐겁게 운영하고 계시군요?

A 네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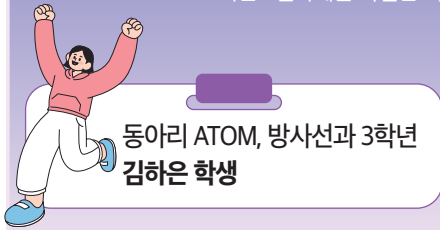
학과 동아리 부스 이외에도 이번 축제에는 학생들에게 교양 과목을 소개해주는 강원 LRS 공유대학부스, 심리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한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도 참석해 더욱 풍성한 한빛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 날 진행되는 결승전을 위해 피구, 족구 등 예선 경기도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열띤 참여 속에 한빛제의 1일차가 마무리 되었다.



2일차 한빛제!

한빛제 1일차가 마무리되고, 2일차에 접어들었다.

1일차보다 더 화창하고 더운 날씨로 준결승전과 결승전이 진행된 만큼, 한림성심대학교의 캠퍼스는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번 2일차에는 특별한 기계를 활용해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는 'ATOM' 동아리와, 이어서 피구 결승전 그리고 풋살 준결승전 경기를 뒀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동아리 ATOM, 방사선과 3학년 김하은 학생

Q 안녕하세요! 오늘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사선과 학술 동아리로 연구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오늘처럼 이런 행사나 축제 같은 때에 갑상선 초음파 부스를 열어서 활동하는 식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오늘 동아리 부스에서 가장 메인으로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A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건 갑상선 초음파를 보는 건데요. 실제로 갑상선 부위에는 병변이나 물혹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계를 통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라고 권유드릴 수 있거든요! 진단을 내리는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상태를 알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늘이 2일차이자 마지막날인데요! 1일차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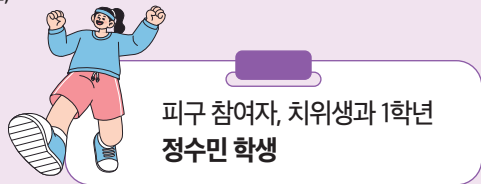
A 아무래도 2일차이다 보니 같이 부스를 운영하는 친구들의 초음파 스캔 스킬이 남달라진 것 같아요. 또 사실 여기가 야외이다 보니까 초음파실처럼 어두운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밖에서는 모니터가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일차에는 조금 더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마음안심버스 부스 체험 모습

Q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도 동아리 부스 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네 감사합니다!



피구 참여자, 치위생과 1학년 정수민 학생

Q 오늘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경기가 끝난 지금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A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끝난 직후에는 너무 마음이 후련해졌고, 지금은 얼른 집에 가서 폭 쉬고 싶다는 마음이 큼니다.

Q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짜릿했거나 정말 이겨는 대대로 간직하고 싶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A 팀원들끼리 으쌰으쌰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뒤라하지 않고 오히려 응원과 함께 격려를 해주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피구 경기 모습

Q 그렇다면 반대로 모든 경기를 포함해서 우리팀이 "아... 질 것 같은데" 했던 순간도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1일차인 어제 경기 중 예상하지 못한 공에 맞아 아웃 됐을 때 순간적으로는 흔들리고 아쉬움이 컸지만 밖에서 흘러오는 공을 잘 받아내서 '팀에 도움이 되게 플레이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회복하였습니다.

Q 팀원들끼리 경기를 준비하거나 뛰면서 서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아무래도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겨야지"였습니다. 경기 내내 서로 응원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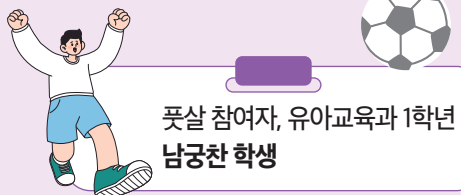
Q 오늘 경기하신 종목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피구는 단순히 공을 피하고 던지는 운동이 아닌 공이 어디로 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서 플레이해야 하는 경기라 피지컬과 뇌지컬을 동시에 써야 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Q 열심히 경기 뛰여주신 덕분에 한빛제가 더 빛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이어서 체육관에서 오후 13시부터 13시 40분까지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의 긴장감 넘치는 풋살이 시작됐다. 경기 결과, 간호학과가 준결승을 거두며 1학년 골키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풋살 참여자, 유아교육과 1학년 남궁찬 학생

Q 경기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가 끝난 지금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A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Q 경기 보니까 공막을 때 무서움도 있을 법한데 몸을 사리지 않고 다 막으셨는데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나요?

A 예전부터 공을 무서워하지 않는 성격이라 크게 겁나지 않아서 일단 막고 보자라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꼭 이기고 싶은 마음에 몸을 아끼지 않고 플레이했습니다.

Q 골키퍼 역할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상황이 보이는 위치에 서 계신데 그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빈 곳을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팀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해주면서 자리 정리를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Q 그렇다면 골키퍼로서 가장 두려웠던 상황은 언제였나요?

A 아무래도 마지막 승부차기 상황이 가장 떨렸습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되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막아보려고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Q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짜릿했거나 이젠 정말 간직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A 상대 선수와 1대 1로 맞섰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골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온몸으로 막아보려 했던 경험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풋살 경기 모습

이렇게 해서 2026년 이틀 동안 진행된 체육 대회는 끝이났다.

결승을 정리해 보자면 농구와 피구 우승은 치위생과&레저스포츠과가, 풋살 우승은 자율전공학과&디자인공공&건설도시전공&건축공공이 차지했다. 또한 물리치료과는 한빛제 기간 동안 자년에 이어 이번 연도에도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끈끈한 단합력과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날씨가 더웠던 만큼 학생들의 응원 열기와 선수들의 땀도 뜨거웠던 한빛제였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함께 뛰고 즐기며 최선을 다해주어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OUT 독서인증, 마일리지 항목에서 제외 AI 서평 등 부정행위 방지 차원

2026학년도 1학기 독서인증 안내

관 령 : 학생지원팀-1085(2026.03.24) 2026학년도 1학기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장학사업 시행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1학기 독서인증을 안내하오니,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림성심성경인증제 독서인증

- 1) 사업기간 : 입학 학기 - 졸업 학기
- 2) 사업대상 : 재학생
- 3) 인증조건 : 2년제 10권, 3년제 15권, 4년제 20권

나.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독서인증

- 1) 사업기간 : 2026. 3. 24(화) ~ 7. 3(금)
- 2) 사업대상 : 재학생
- 3) 변경사항 : 독서인증 배점 0점으로 변경

구분	2025년 독서인증(변경 전)	2026년 독서인증(변경 후)
배점	한빛백선 30점, 자유도서 10점, 최대 100점	한빛백선 0점, 자유도서 0점

4) 변경사유 : 최근 시로 작성한 서평을 제출하거나, 여러 학생이 동일한 서평 파일을 공유하여 제출하는 등 공기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배점을 삭제함. 그러나 교무지원팀의 한림성심역량인증제에서 독서인증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배점을 0점으로 변경하되, 독서인증 항목은 유지함

한림성심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독서인증 관련 안내문

우리 대학 학생들의 높은 참여를 끌어냈던 '독서인증 마일리지' 배점이 이번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던 독서인증은 한빛백선 및 자유 도서 서평 작성을 통해 최대 100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 해당 항목의 배점이 0점으로 변경되면서, 마일리지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학교 측이 밝힌 운영 방식 변경의 주된 원인은 '평가 신뢰성 저해'입니다. 최근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서평을 대필하거나, 동일한 서평 파일을 여러 학생이 공유해 제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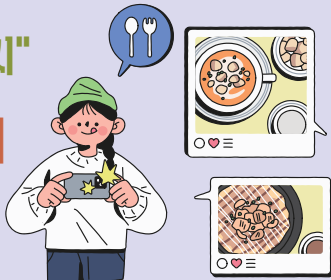
다만, 마일리지 혜택은 중단되더라도 '한림성심역량인증제'를 위한 독서인증 데이터는 계속 활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일리지를 통해 독서 의욕을 고취해 온 많은 학생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김예나 기자 kimyn0309@naver.com



"봄동비빔밥부터 불닭볶음밥까지" 진화하는 학식, 지역사회의 '맛남의 광장' 되다.



우리 대학 학식 운영 업체인 '푸드스트'가 학생들의 취향을 반영한 이색 메뉴를 선보이는 한편, 석식 운영 및 지역 사회 개방을 통해 운영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 범위의 확대도 눈에 띈다. 그동안 점심 운영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얼마 전부터 석식 운영을 본격화했다.



3월 9일에 진행된 봄동비빔밥 특식 홍보 게시물



4월 8일에 진행된 불닭볶음밥 특식

지난 3월 9일에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봄동비빔밥'을 메뉴를 특식으로 제공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감각적인 식단을 선보였으며, 4월 8일에는 삼양식품과 함께하는 'World Street Kitchen' 프로젝트를 통해 '불닭볶음밥'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학생들에게 캠퍼스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학교 인근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기숙사생들에게 저녁 운영은 가뭇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를 캠퍼스 내에서 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식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또한, 우리 대학 학생식당은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가격과 검증된 품질의 식사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며, 대학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학 식당의 이 같은 변화는 교내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예나 기자 kimyn0309@naver.com



4월 8일에 학생식당에서 진행된 'World Street Kitchen' 행사

"학교 소식부터 17만 뷰 릴스까지" 우리 대학 인스타그램, 소통의 중심에 서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공식 인스타그램이 단순한 정보 전달 창구를 넘어 다채로운 소통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입시 정책 자문 위원단 회의와 같은 심도 있는 의사결정 과정부터 학과 산학협력 MOU 체결 등 대학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주요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식들은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다채로운 포스팅으로 구성되어 학교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캠퍼스의 계절별 풍경과 각종 행사 현장 스케치는 물론,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학사 일정 등을 가시성 높은 콘텐츠로 제작해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한림성심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숏폼 콘텐츠의 활약이다. 학내 소식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담은 트렌디한 릴스 영상들은 게시될 때마다 높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대다수 영상이 수천 회의 조회수를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회수 17만 회를 돌파한 영상까지 등장하며 폭발적인 파급력을 증명했다.

이처럼 우리 대학 인스타그램은 전문적인 정보의 신뢰성과 콘텐츠의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대학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다채로운 콘텐츠로 학생들을 즐겁게 해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예나 기자 kimyn0309@naver.com

시험기간, 열심히 공부하는 한림성심대학교 학생들의 모습!

한림성심대 찬반 토론

"대학교 시험 평가방식은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공정하다"

✓ 절대평가가 공정하다는 것에 '찬성'한다

대학교 시험은 크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나눌 수 있다. 절대평가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의 점수에 따라서 성적이 매겨지는 시스템으로, 국가 자격증 시험, 수능 한국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비율에 따라서 등수로 성적을 매기는 시스템이다.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 수능 백분위 등이 여기 속한다. 절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공정하다 라고 단정할 순 없으나, 절대평가에 비해 상대평가가 가지는 단점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자.

우선, 과목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다면 높은 점수를 받아도 낮은 학점을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시로, 전체 수강생이 20명인 과목에 90점 이상을 맞은 사람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그 10명 모두가 똑같이 A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비율이 정해져 있는 평가 방식 때문에, 95점을 받았더라도 B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동기의 저하,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연구 자료(대학교수-학습연구, [대학의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석-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KCI, 2021년, 76쪽)에 따르면, 상대평가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37.5%, 만족 비율이 22.8%로 약 15%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대평가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심을 북돋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악화시켜 학생 간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생들끼리 건강한 경쟁 문화를 형성하여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상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학우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도서관, 카페 등)를 미리 독점해두거나, 학생 간 기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재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본 결과, "시험 기간에 책을 읽고 싶어서 도서관에 갔는데, 자리를 차지해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다."라는 경험을 전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비율에 따라 성적을 매기는 방식'이라는 상대평가의 구조적 문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가 잇따른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필자는 과목마다 학생들이 평가 방식을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까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하는 바이다.

이시훈 기자 7sewsstp@gmail.com

시험은 누가 더 뛰어난지를 가려내기 위한 경쟁일까? 아니면 각자가 얼마나 배웠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평가 방식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절대평가는 타인의 성과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취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반면 상대평가는 다른 학생들의 성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진다.

이로 인해 개인이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보였더라도, 타인의 성취도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절대평가가 다른 학생들과 무관하게 개인의 성취만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평가 결과가 외부 요인에 의해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평가는 안정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절대평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체계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본 학생이 많을 경우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의 목적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면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평가의 기준 역시 타인이 아닌 개인의 성취에 맞춰져야 한다. 절대평가는 이러한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가희 기자 lghet1@naver.com

✗ 절대평가가 공정하다는 것에 '반대'한다

대학 사회에서 평가 방식은 단순한 점수 매기기를 넘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최근 절대평가의 유연함이 주목받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모두가 승자인 시스템'은 누구도 진정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든다. 노력한 자가 그에 걸맞은 높은 점수를 받고, 그 점수가 장학금과 편입이라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상대평가야말로 대학 교육이 지켜야 할 공정성의 핵심이다.

상대평가의 가장 큰 미덕은 치열하게 노력한 학생의 성과를 객관화해준다는 점에 있다. 모든 학생이 기준 점수만 넘기면 동일한 성적을 받는 구조에서는 압도적인 학습량으로 수업에 집중한 학생의 열정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특히 성적이 장학금 수혜나 대학 편입의 결정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변별력은 곧 기회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상대평가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치적 서열을 제공함으로써 더 성실히 임한 학생이 정당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상대평가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경쟁심을 유도하여 수업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 타인과의 비교가 주는 긴장감은 단순히 스트레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수준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결국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쏟는 몰입의 시간은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다.

김예나 기자 kimyn0309@naver.com

나는 대학교 시험의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가 더욱 공정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유로는 첫 번째, 절대평가는 속한 집단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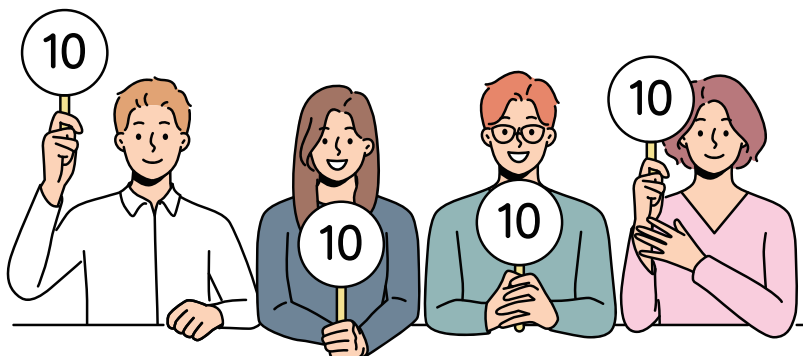
예를 들어, 같은 80점 이더라도 어떤 반에서는 상위 5%일 수도 있고, 다른 반에서는 중간위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이러한 집단 내의 분포나 평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점수만 넘으면 동일한 성적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학생 개개인의 실제 성취 수준이나 위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학생의 역할과 학습 동기 측면에서도 상대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평가는 '다른 학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강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히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와 다르게,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차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되려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대평가는 시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절대평가의 경우 시험이 쉽게 출제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반대로 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반적인 성적이 낮아지면서 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상대평가는 동일한 시험을 본 집단 내에서 학생들끼리 성적을 비교하여 그 중 상위권과 하위권을 나누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평가는 평가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김지현 기자 nokp141@naver.com



한 줄 명언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

니체의 책 '우상의 황혼'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니체는 고난을 긍정하고 마주하며,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 자신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철학자이다. 니체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보다, 고난을 이겨내며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옳다고 판단하여 만들어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위버멘슈(초인)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구는, 그런 니체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 번 돌아보자. 우리는 그동안 눈앞의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싸우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물어두고 회피하며 살아왔는가? 만약 당신이 전자라면, 당신은 지금 매우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들어낸 가치대로, 앞으로의 인생을 당신의 방식대로 헤쳐나가면 된다.

만약 당신이 후자라고 해도, 당신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재밌는 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당신 인생의 주체자로서 살아갈 기회는 언제든 마련된다. 때문에 당장의 실패에 기죽지 마라. 당신은 언제든 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체성, 나의 인생을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시훈 기자 7sewsstp@gmail.com



쓰레기봉투 사재기, sns의 영향 논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쓰레기봉투의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자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미리 대량으로 사놓는 이른바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 이 흐름에 맞춰 여러 SNS에서도 쓰레기봉투 사재기와 관련된 소식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재기가 단순히 원재료 수급 불안이라는 사회의 흐름 때문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필자는 sns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sns에는 텅 빈 매대 사진이나 쓰레기봉투를 가득 사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러한 게시물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별생각이 없던 사람조차 '나도 지금 사놔야 하나?', '남들 다 사는데 나중에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이런 개인의 불안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결국 대규모 사재기라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3개월 치 이상의 충분한 재고가 있음을 알리고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재기 현상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일종의 '물타기' 심리가 작동한 셈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소비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일부 사람들이 이미 충분한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실제로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통 과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한다. 특정 시기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공급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sns가 발달할수록 소식은 빠르게 전해지지만, 그만큼 우리가 받는 영향도 깊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이슈들, 혹은 사실과 다르게 와전되는 정보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있지 않은지 말이다.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인 만큼, sns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김지현 기자 nokp141@naver.com

'거지맵' 확산, 가성비 식당 정보 공유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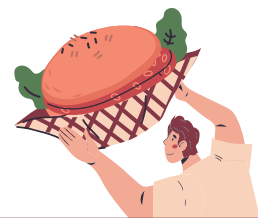
최근 물가 상승으로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식비와 카페 등 비용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거지맵'이라는 새로운 소비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거지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거지맵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정리해서 공유해 주고 있는 사이트이다. 주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거지맵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한 끼 식사 비용조차 부담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가성비 좋은 식당들을 찾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작은 지출 하나도 중요하기에 거지맵은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지맵은 최소 1,000~10,000원까지의 음식점만 공유를 해주고 있으며 그날그날 먹고 싶은 음식을 통해 카테고리로 적용해서 음식점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음식점 공유만 해주는 것이 아닌 게시판처럼 사람들끼리 소통도 할 수 있는 '거지방'이라는 것도 함께 존재한다. 거지방에서는 가성비 음식점 후기와 매장 선착순 쿠폰 받는 방법, 고민 상담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이것을 통해 거지맵은 단순한 절약 방법이

아닌 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활용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소비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지맵'의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희 기자 lghet1@naver.com



학보에서 만나보는 시사상식

풍선효과

(Balloon effect)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을 강하게 억제할 시, 그 영향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부풀은 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약 단속을 들 수 있는데,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감소될 수 있지만, 주변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거래가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풍선효과는 경제, 사회, 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단일한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핀테크

(Fin 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결제, 온라인 투자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으며, 특히나 현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핀테크는 금융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낙후된 특정 도시나 지역에 새로운 자본과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지역 환경이 개선되는 것과 동시에, 기존 살고 있던 주민이나 상인 등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에 상권이 형성되고 유동 인구가 증가되며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들의 삶과 터전이 사라지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지역 공동체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우려가 크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를 되살리려는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볼 수 있다.

김지현 기자 nokp141@naver.com

학생의 목소리가 더 나은 시설로!

시설민원 게시판

학생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듭니다.

시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설민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신속하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시설민원 게시판이 좋은 이유!



간편한 민원 접수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시설 안전과 예방을 위해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용 방법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1. 휴대폰 카메라 QR코드 촬영

2. 학번 로그인 카테고리 시설민원 클릭

3. 민원 작성 및 제출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

4. 결과 확인 알림

학생과 함께,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갑니다!



학업+사회경험+장학금까지! 근로장학생 신청 가이드



글 김사훈 기자, 김지현 기자
그림 손우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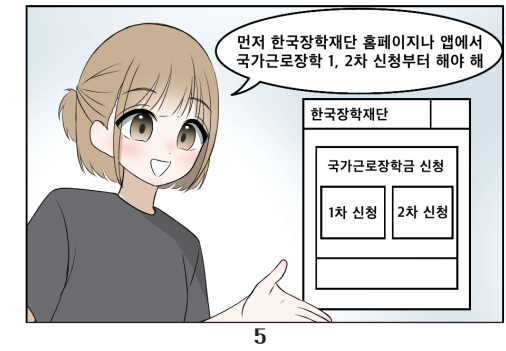
4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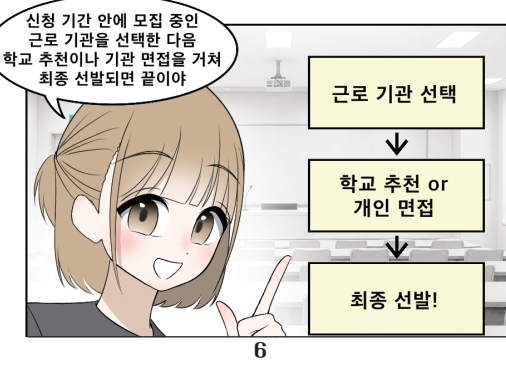
5



8



3



6

한림성심대학교 공식 유튜브 & 인스타그램

HALLYM_SS



도서관 이달의 책

2026년 6월 <여름을 닮은 문장들>

6월의 여름은 아직 완전히 뜨겁지 않은 계절이라, 마음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햇빛이 길어지고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만큼, 감정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읽는 시들은 답을 주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게 합니다. 초여름의 공기처럼 스며드는 시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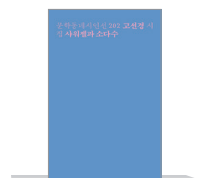
제공 : 한빛도서관 이민진 사서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저자
지혜 출판 / 2015년 출간
정구기호 : 8117 L4571
소장위치 : 도서관 3층 자료실 4



바다는 잘 있습니다
이병률 저자
문학과 지성사 출판 / 2017년 출간
정구기호 : 8117 O7371
소장위치 : 도서관 3층 자료실 4



사위젤과 소다수
고선경 저자
문학동네 출판 / 2023년 출간
정구기호 : 8117 T3561
소장위치 : 도서관 3층 자료실 4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김용택 저자
예담 출판 / 2017년 출간
정구기호 : 808.1 T8560-1
소장위치 : 도서관 3층 자료실 4



시와 산책
한정원 저자
시간의 흐름 출판 / 2020년 출간
정구기호 : 818 T3611
소장위치 : 도서관 3층 자료실 4